조계종 통일종책 수립 필요성 수면 위로

민추본, 7월 20일 '정책환경 변화대비 통일종책 연구보고회'

"조계종의 공식적 통일종책은 부재하다. 총무원과 종회서 결의한 일관된 통일정책이 필요하다."(김용현 동국대 북한학 교수)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9년간 악화일로를 걷던 남북정세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새 국면에 따른 조계종의 통일종책을 수립해야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현재는 총무원 및 종회에서 결의된 공식 통일종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번 논의가 향후 대북사업 관련 종책 수립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법타)는 '정책환경 변화대비 통일종책 연구보고회'를 7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개최했다.

그동안 불교계뿐 아니라 남북민간교류는 국가 간 정세에 따라 크게 좌지우지됐다. 교류 및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다가도 무산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지난 7월 6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 베를린 선언'이라는 대북구상을 내놓으며 평화적 해결 모색에 나설 것을 밝혔지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 핵실험이 계속되는 한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민추본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난 3월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소장 고유환)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 종단의 통일종책 목표와 방향 수립에 나섰다. 김용현 · 이창희 교수 등 발제자들은 이날 종단 차원의 통일종책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며, 남북정세 여파에도 흔들림 없는 일관된 통일 사업을 추진해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현 교수는 "2009~2016년 불교계는 '통일종책연구위원회(안)'과 '민추본 발전방안 2.0'을 수립하는 등 실천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모두 큰 결실을 맺지

동국대 북한학硏 공동 연구
정책 변화대비 통일종책 검토
종단 종책 수립 '한 목소리'
"흔들림 없는 통일사업 해야"

못했다. 주된 원인은 남북관계의 악화"라면서 "더 이상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 통일사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를 극복할만한 통일종책을 내놔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통일종책의 3가지 방향성으로 △남북정세에 따르지 않는 일관성 수립 △평화적 여론 조성을 위한 대대적인 불교통일교육 실시 △통일종책의 공론화 및 제도화를 제시했다.

또한 그동안 통일종책이 수립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김 교수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공론화 및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대대적인 통일종책이 채택돼야만 불교계의 통일 실천이 힘 있게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7월 20일 통일종책 연구보고회를 열고, 종단 차원의 확고한 통일종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창희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남북관계는 변화 조짐을 맞았지만, 통일종책은 변화된 정책환경에 만족하는 방향으로 수립돼선 안 된다"면서 "변화된 정책환경을 불교적 평화의 관점서 대처하고, 일관되게 전개해갈 수 있는 통일종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그동안 조계종의 통일사업이 연구보고서 및 민추본 사업형태로 제시되던 점을 언급하며, 이는 종단의 공식적인 통일종책으로 보기 어렵고 총무원 및 종회 차원의 '분단 극복과 통일 원칙' '장기적 사업 계획 및 로드맵'을 채택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불교 통일사업 5개년 계획(2017~2021) △한반도 분단 극복 100년 불교 통일 방침 △동북아 및 국제적 차원의 불교 통일사업 전개 등을 예시 과제로 제안했다.

토론자들 역시 조계종 통일종책 수립 필요성에 공감하며, 방법에 대해 첨언했다.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통일종책의 수립에 앞서 대북사업의 모범모델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남북대치라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교류사업을 진행한 종교계 및 민간단체가 있는지 찾아보고, 만약 있다면 그 이유와 방법을 연구 학습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연구결과는 의견수렴 및 수정 · 보완 과정을 거쳐 7월말 최종보고서 형태로 발간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4차산업 시대 안전망, 기본소득제"

이재명 성남시장, 조계종복지재단 미래복지포럼서

"한국사회는 자원과 배분의 극단적 왜곡이 나타나고 있다. 자본주의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선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 현재의 현물지원 · 선별복지 형태서 현금지원 · 보편복지의 형태로 발전시켜야한다."

'청년배당' 제도를 통해 한국사회에 사실상 첫 기본소득제 개념을 도입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7월 18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주최한 제54회 미래복지포럼 '기본소득, 복지제도의 새로운 대안인가?'서 기본소득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시장은 소수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구조의 여파로 발생되는 불평등 및 자원과 배분의 왜곡을 막고, 최종생산된 가치를 모든 구성원들이 골고루 나눠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즉 기본소득제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발전 낙수효과 일시 · 제한적
보편적 혜택, 사회전반 복지 도모

이 시장은 "특정 소수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해 낙수효과를 노리는 것은 매우 일시적, 제한적이다. 중소기업에도 공정하게 기회를 주고 배분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가 침체되고 자본주의의 위기가 올 것"이라면서 "특히 일자리의 대대적 축소가 우려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서 분배의 평등을 실현해야만 사회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제의 형태로 이 시장은 '보편복지'를 제시했다. 보편복지란 자격과 조건 없이 요구가 있으면 모든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형식이다. 이 시장은 "선별복지의 가장 큰 문제는 복지혜택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더욱 극렬히 저항한다"면서 "세금을 내는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한다. 그래야 '세금=뺏기는 것'이라는 인식이 사라지고, 사회 전반의 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시장은 '현금지급' 원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금을 지급하되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를 줄 경우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단 것. 복지 대상자에게 경제적 지원과 처분의 자유를 주면서도 제2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기본소득과 관련한 시민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대부분 기본소득제의 부작용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기본소득제가 함께 시행될 경우 이중수혜에 문제가 불거질 수 있지 않냐"는 한 시민의 질문에 이 시장은 "성남시의 '청년배당'도 같은 문제를 겪었다. 정부 정책에 따르면 청년배당 혜택을 받을 경우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일부가 혜택을 못 받게 되어있다"면서 "이것은 부당한 역차별이다. 정부의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바뀌어야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월세 · 전기세 등 최소한 생계비용으로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하지만 복지혜택도 여러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 △최소 생활비 부담 해소 등 장점이 있는 한편, 피해갈 수 없는 단점도 발생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아름 기자

동화사 '지장시왕도' 30년 만에 제자리 찾다

조계종, 1988년 도난된 불화 美 LA카운티박물관서 반환

1988년 도난된 것으로 알려진 동화사 염불암 '지장시왕도'가 30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정현)와 미국 LA카운티박물관(관장 마이클 고반)은 7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로비서 '동화사 염불암 지장시왕도 반환식'을 거행하고, 성보의 환지본처를 기념했다.

조계종은 2014년 12월 〈불교문화재 도난백서〉에 실린 동화사 염불암 지장시왕도가 LA카운티박물관에 소장돼 있음을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성보 반환을 요청했다. 이에 박물관 측은 도난 근거를 확인하고 조계종과 만나 협의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과 마이클 고반 LA카운티박물관장이 기증서 서명 후 교환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후 이사회서 반환을 의결했다. 도난된 지장시왕도는 20여 년 전, LA카운티박물관이 한국미술품을 대규모로 구입하면서 미국으로 건너갔다.

반환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총무부장 지현 스님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사부대중의 성보전승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보는 굴곡진 역사를 거치면서 많이 유출됐다"며 "소중한 성보가 청정도량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도 문화재 반환 요청을 선뜻 받아들인 LA카운티박물관 측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성보 보존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마이클 고반 박물관장은 "이번 반환은 새로운 가치를 알리고, 조계종과 LA카운티박물관이 공동의 목표를 이뤄나갈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불교미술전시 등을 열어 조계종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사찰음식에 빠진 미스코리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치 성공과 강원 지역 템플스테이 참가 독려를 위해 2017불자 대상을 수상한 미스코리아(2002년 眞) 금나나 씨가 나섰다.

금나나 씨는 건강한 사찰음식 조리법을 배우기 위해 7월 13일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을 찾았다. 형민 스님과 함께한 이날 자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아 강원 지역의 템플스테이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이날 진행된 금나나 씨의 사찰음식 체험기를 영상으로 제작,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치 성공과 강원 지역 템플스테이 참가 독려를 위해 추후 배포할 예정이다. 금 씨의 사찰음식 체험기는 오는 8월 중 사찰음식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박아름 기자 · 사진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동양 역학(易學)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FCA동양미래예측학 석하명리(奭廈命理) 여름 강좌 안내



爽廈(석하) 소 재 학 교수

동양미래학자, 미래예측학박사 1호
명리학자(공식전공 사주명리학박사 1호)
국제뇌교육대학원 명리미래예측전공 주임교수
동국대FCA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주임교수
동국대FCA 풍수지리(+관상) 최고위과정 주임교수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FCA/ GFCA) 회장
재)하원정미래학회 회장/ 서울신문 STV 그룹 고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Main biz 충북) 자문위원
한국 동양미래예측학회 회장, 각 기업 투자 경영 자문
국제미래학회 동양미래학 위원장, 대한민국 명강사 대상
국회 미래정책연구회 동양미래학 위원장

MBN 황금알, 채널A 아빠본색, 부동산TV 풍수야 놀자, MBC, SBS 외

대표적인 동양미래예측학, 논리로 푸는 사주학 석하명리(奭廈命理)

때를 찾는 지혜, 불확실성의 시대, 동양의 미래예측학, 과학역학(易學) 현대 사주명리학 석하명리(奭廈命理)

정확한 성공과 실패의 시기, 자신만의 때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학문, 검증 가능한 작명법, 타고난 선천적 성격적성과 성격체질 변화시기 분석법,
이유 없이 좋아 지고 싫어지는 시기와 콩깍지의 유효기간, 최상의 배우자를 만나는 시기 찾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는 과정.
기존 사주명리학 아무리 오랫동안 공부해도 정확한 성공과 실패의 시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근거 없는 비법들을 무조건 암기하기보다 음양오행, 십간십이지, 사주학 관련 모든 이론의 원리부터 공부합니다. 원리를 알면 공부가 어렵지 않고 재미있습니다.
유투브 '논리로 푸는 사주학' 및 '황금알 속설 검증' 편 참조, 다음카페 '동양미래예측연구소' 참조.
수료시 FCA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 회장 명의 수료증, FCA동문 자격, 소정의 절차를 걸쳐 과정에 따른 자격증 취득.

경력자를 위한 석하명리 5개월 속성마스터과정 8월 9일(수) 19시 개강 특강

※ 8월 9일(수) 19시 개강 및 공개강좌(예약순 30명), 매주 수요일(19시 ~ 21시 30분), 수강료 165만원(VAT별도)

- 경력자, 현업 종사자, 중급자를 위한 5개월 15주(월3~4회) 속성 마스터 과정(8~12월), 학문 마스터 까지 무한 반복수강
- 특전 : 명리진로적성 상담사 1급, 2급 자격증(소정의 절차 후), 스마트폰 앱(소비자가 120만원) 무료 설치, 소재학 박사 직강

석하명리 왕초보 과정 주간반 8월 11일(금), 야간반 8월 22일(화) 개강 특강

※ 왕초급 3개월 과정, 11일(금) 10:30, 22일(화) 19:00 개강 및 공개특강(예약순 30명), 수강료 24만원(VAT별도)
주간반 11일부터 매주 금요일 10:30 ~ 12:30, 야간반 22일부터 매주 화요일 19:00 ~ 21:00

- 교수진 : 석하 소재학 박사, 석원 박성희 박사, 린정 김윤연 교수, 심원 남상용 교수, 국원 임영 교수

FCA미래융합아카데미 동국대 최고위과정

- 동국대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제5기 / 동국대 FCA 풍수지리(+관상) 최고지도자과정 제2기 진행 중

동양 역학의 과학화를 선도하는 FCA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 / 문의 02-3443-4984 (하원정미래학회)

※ 주 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59-28(서운로 24), 서일빌딩 4층(한전아트센터 앞 베스트문구 4층)
※ 찾아 오시는 길 : 양재역 1번 출구 직진 서초구청 사거리(KEB하나은행) 우회전 200M, 주차 - 한전 아트센터 유료주차